

존 오스왈트 박사, 호세아, 세션 5, 호세아 5장,

© 2025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 비디오를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필사를 허가한 Francis Asbury Society(켄터키주 월모어)와 Oswalt 박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우리는 호세아 6장을 봅니다. 지금까지 책 전체를 여행하는 동안 우리는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와 그의 창녀 아내 고멜에 대한 생생한 비유를 통해 이 책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장은 이 비유를 야훼와 이스라엘에게 적용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3장은 호세아가 노예 블록에서 고멜을 다시 사서 그녀를 다시 그와 약혼시키는 비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 즉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그들만의 방식을 원하는 그들의 앞뒤 관계에 대한 그림을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순수한 사랑, 온전히 헌신하는 사랑, 부분적이고 나누어서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연인들에게도 베푸는 사랑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4장과 5장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명명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지식, 사랑, 신실함 세 단어, 히브리어 다아트(da'at) 는 지식, 우리가 이전에 많이 이야기했던 헤세드(hesed), 그리고 에메트 (emet) 와 에무나(emunah) 라는 두 단어는 모두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습니다. 진실, 둘 다 신실함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권 이후에는 책의 윤곽이 분명하지 않지만, 회개에 대한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표현을 기준으로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회개에 대한 부르심의 첫 번째 표현은 여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4장과 5장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부분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장 4절부터 10장 15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할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6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공과 시트에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제목을 선택하도록 요청합니다. 성경 공부에서 단락과 장에 제목을 붙이는 것은 주의를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의 실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하는 내용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아, 그건 맞는 제목이고, 그건 틀린 제목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은 단지 당신이 그것을 알아내는 장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제목을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3절에서 주님을 알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여전히 그분이 우리를 소생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모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포착하려는 단순한 방법일 뿐입니다.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그 부르심, 우리는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호세아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입니다.

동시에 그분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돌아가나요? 그것은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반복은 교육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생각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그렇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분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내용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같은 것입니까? 그분은 무엇을 하시나요? 예, 하지만 그것은 말하자면 출입구일 뿐입니다. 집은 그분과 살아 있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자, 돌아서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성서의 복귀의 의미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상을 향해 가는 것을 멈추자.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돌아서는가?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돌아서십시오.

그분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 '알다'는 성적 포옹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를 알았고, 하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시 한번 친밀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죄의 정죄와 정죄로부터 구원하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소외로부터 당신을 구원하시고, 당신을 그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다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네, 이 구절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돌아서서 그분을 다시 또 새롭게 알기로 결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관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2절을 주목해 보세요. 이틀 후에 그분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소서.

셋째 날에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내일을 말하는 히브리어 방식이고, 다음 날은 미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면전에서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 다른 맥락에서 나는 이것이 실제로 걷기라고 제안했고 현대 번역에서는 걷기의 은유를 라이브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이브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어. 우리의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의 반란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문자 그대로 그분의 얼굴에 나타날 것입니다. 생명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우주에서.

우주의 창조자와 교제합니다. 오늘날 우주론자들은 생명에 관한 모든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수백만 개의 은하계와 각 은하계에는 수백만 개의 별이 있고 각 별에는 행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글썄, 아마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이 행성의 생명체와 똑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물인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육체의 생명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몸과 영혼, 킹제임스 성경 전체에 관한 문제가 실제로 독일어로 되어 있어서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한 많은 히브리어 단어처럼 히브리어로 된 단어를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페쉬라는 단어죠. 그리고 네페시는 자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조카에게 말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아니면 나 자신도 그랬다. 자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성격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당신과 나를 최종적으로 정의하고 우리를 현재의 모습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그래, 우리 몸. 나는 독특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육체가 영에 의해 살아나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시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나, 당신이 있습니다. 실제 인간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아,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이 세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존재하는 유일한 생명은 영원히 살아 계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존재이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돌아서 자. 우리 삶의 근원으로 돌아가 그 친밀감 속으로 뛰어들도록 합시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나를 위해 죽으신 분과 나는 얼마나 가까이 살 수 있을까? 자, 자,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분은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유는 그가 치료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하루나 이틀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는 즉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결과를 원합니다. 당신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께 돌아오면, 그분은 당신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을 재구성하고 다시 조립하는 것은 하루나 이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망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것에 대해 더 많이 말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망쳤습니다. 그는 우리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 저게 무슨 신이냐?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고쳐 주실 것입니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그에게 다가왔는데 그의 팔은 일종의 지그재그 모양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소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바로잡아 주실 수 있나요? 그러자 그는 “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음, 원숭이를 따라 나무에 오르다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 너무 오랫동안 팔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결국 나아지긴 했는데 이렇습니다. 의사는 " 그래, 낫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상처를 입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똑바로 하려면 팔을 다시 부러뜨려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네,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의 참된 삶을 돌려주기 위해서, 아프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단지 당신을 치유하려는 목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재미 때문에 우리를 해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단지 그분의 분노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시는 일이 결코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자주 하는 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마지막 말씀은 결코 멸망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의 의도가 아닙니다.

이제 이것은 나를 웨슬리안 알미니안(Wesleyan Arminian)으로 표시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선택하셨고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선택하셨다고 믿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며 그 중 어느 것도 잃어버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에 하신 마지막 말씀은 결코 파괴를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호세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당신을 추방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날짜에 관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호세아는 기원전 750년에서 기원전 720년 사이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30년 동안 북왕국에는 다섯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 4명은 암살로 사망했다.

그것은 피바다였습니다. 결국 722년에 포로로 잡혀가고,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장인의 지도력이 포로로 잡혀 가난한 자 중에 가장 가난한 자들만 남기고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의로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싶어하십니다.

아니, 만일 그분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 가는 그림입니다.

해가 돋는 대로 반드시 그가 나타나리라. 그분은 겨울비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유프라테스나 나일강처럼 관개용으로 사용할 큰 강이 없습니다.

좋은 수확을 얻으려면 겨울비, 즉 11월과 12월을 맞아야 합니다. 그들은 땅에 곡식을 심었습니다. 이제 씨앗이 싹트려면 비가 와야 합니다.

그런 다음 2월과 3월에 봄비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곡물이 자라서 이제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휴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곡물 머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까요? 그분은 생명을 주는 비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돌아서서 그가 그렇게 하도록 놔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세 구절의 전체 도전은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위해 우리를 멸망시킨 후에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유배뿐이었다. 먼저 앗수르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만이 그들의 참된 믿음을 보존하고 다시 가져와 땅에 심을 것입니다. 유배는 성경적 신앙을 위한 영양분 요소가 되었습니다.

망명자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들의 취향을 고려했을 때, 성경적 믿음은 단순히 사라졌을까요? 글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맥락에서 볼 때, 실제로 그들을 정신을 차리게 한 것은 유배의 상처, 고통, 비극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맙소사, 그래, 그래, 우리는'이라고 말하게 해주세요.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로 생활은 고멜에게 있어서 노예 블록과 같습니다.

그녀가 노예 구역에 있었다가 사랑하는 남편이 다시 사서 충실한 결혼 생활을 하며 그와 함께 살고자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작 구절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4장과 5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장들, 6장, 7장, 8장, 9장에서 10장의 나머지 부분, 그리고 그 사이의 중간은 6절, 1장부터 10장입니다. 3-4절.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에브라임?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다? 이제 호세아는 북왕국과 남왕국 모두를 위한 선지자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아마도 그보다 조금 더 이른 750년경에 예언한 아모스의 주소는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두 사람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유다야, 네가 에브라임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에브라임은 북쪽 왕국의 지배적인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가 에브라임에 관해 말할 때 그는 단지 그 지파만이 아니라 북쪽 왕국 전체에 관해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기본적으로 한 지파, 유다 지파뿐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북부 사람들이 야훼의 황소 우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맏소사, 정말 죄인들이군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우상은 없고, 언약궤와 언약궤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확실하게 그 일이 일어난 후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뭐라고 말했지? 네,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게 되었어요. 호세아는 “믿지 못하느냐”고 말합니다. 당신은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복음주의자들을 위한 말입니다. 우리가 주류 교단을 손가락질하면서 "저걸 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물론이죠.

그것이 그들이 가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학교가 가는 길이었습니다. 물론이죠.

물론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호세아처럼 우리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인가요?

당신은 단지 몇 년 뒤쳐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과 행동을 살펴볼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합니까? 우리는 실제로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다? 당신의 헤세드, 당신의 사랑은 아침 안개 같고 사라지는 이른 이슬 같으니이다. 이제 헤세드여, 특히 자격이 없을 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대한 열정적이고 끊임없는 헌신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헌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끊임없는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너희가 이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너희 헤세드,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들에 대한 너희 헤세, 너희 가운데 상하고 낙담한 자들에 대한 너희 헤세, 이주민에 대한 너희 헤세는 안개와 같다.

지속력이 없습니다. 그것에는 견고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신도 나에게 헤세를 베푸는군요.

다시 한 번, 이 단어는 주로 당신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정원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헤세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헤세드는 과분한 친절의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헤세드는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는 행동이지만, 가장 넓은 의미에서는 단순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최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헤세드, 신약성서의 용어로 아가페입니다.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 것이 안개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선지자들과 함께 너희를 쫓아냈다고 말씀하신 이유이다.

나는 내 입의 말로 너를 죽였다. 무엇? 예언의 말은 어떻게 우리를 죽이는가? 그들은 어떻게 우리를 죽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관절과 골수를 가르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음-흠, 음-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고 있다면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만요, 여기를 보세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몇 분 전에 말했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말씀은 생명을 주기 위해 죽이는 것입니다. 저는 농장에서 자랐고 항상 새끼 고양이를 키웠어요.

곳곳에 새끼 고양이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다지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 사람은 개가 식사하는 동안 개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개는 손을 뻗어 새끼 고양이에게 달려들었고 얼굴의 절반 정도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라져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약 3일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상처는 모두 덮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에게 '야, 그 새끼 고양이가 돌아왔어'라고 말했습니다.

관찰을 거예요. 그녀는 나가서 그것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야.

그것이 바로 자랑스러운 육체입니다. 정말 생생한 용어입니다. 고름과 먼지, 기타 모든 것의 조합이며 외부가 굳어진 모든 종류의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과산화수소로 청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죽을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과산화물이다. 선지자들의 말씀은 과산화수소, 찢러 죽이는 것, 교만한 육체를 죽이는 것, 사망에 이르는 생명 길을 가로막는 우리의 특징적인 행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이 선지자들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학생들은 내가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를 구별하는 방식은 거짓 선지자들이 당신에 대해 좋은 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예.

아,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괜찮아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좋은 자아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참 선지자는 너희가 멸망의 길에 있다고 말한다.

계속 그렇게 하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역겨운 일입니다.

그만. 그건 사실이에요, 예언자님. 그리고 그것은 신학교육 분야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큰 교회를 세우는 길이 아닐지 모르지만, 선지자는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입의 말로 너를 죽였다. 그럼 내... 이제 이 본문은 판단을 말합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과 여러 번 이야기한 또 다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나의 미쉬파트이(Mishpatim). 미스파트은 삶에 대한 하나님의 패턴이다.

여기서는 복수형 결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그 판단을 번역합니까? 아마도 더 나은 단어는 방향일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세상을 만든 방식이다.

이것이 내가 세상이 작동하도록 만든 방식이다. 나는 황금률을 바탕으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들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미스빠팀(mishpatim), 나의 삶의 방식, 나의 계획, 성공적인 삶을 위한 나의 지도가 해처럼 나오도록 내 입의 말로 너를 죽였다고 말한다.

당신이 자기 이익을 위해 살고, 자기 확대하고, 자기 홍보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삶의 패턴에 따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지시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6절, 나는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물론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을 은폐했던 사무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날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의 죄가 심하여 아말렉 사람들이 멸망할 날이 이르리라.

그는 사울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울은 군인들이 전리품을 가져오도록 허락했습니다. 군인들이 월급을 받는 방식이죠.

소 중의 최고, 소 중의 최고. 그리고 그는 의심할 바 없이 왕을 다시 데려와 그의 집사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이 그와 마주했을 때 사울은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제물로 바치려고 그 짐승들을 다시 가져왔구나.”

사무엘은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헤세드를 원하십니다. 알다시피, 종교는 매우 편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편에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갑니다. 그래서 돈을 줍니다.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일부입니다. 나는 성경을 가끔씩 읽는다. 우리 집에는 성경이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빛을 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나와 친밀한 교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헤세드를 너무나 깊이 경험하여 포기하고 싶은지 알고 싶습니다. 자, 그게 모두 사실이라면, 나는 당신의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의 성경 읽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의 선물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신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알 수 있듯이 나를 정말로 알지 못한다면, 당신의 교회 예배는 나를 아프게 합니다.

이사야는 불법과 성회를 미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예.

나는 당신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한 당신의 종교적 행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적 상태를 물리적으로 표현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썩었다면 교회에서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학 교육자입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보기 싫다고 하시나요? 7절은 제가 말하려고 했던 약간의 논쟁입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읽어야 할지 난감합니다. 7절은 여러 번역판에서 아담처럼 그들이 언약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나에게 불성실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연히 New International Version입니다. 아담에서와 같이 말합니다.

아담은 요르단 계곡에 있는 도시 또는 마을입니다.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이 그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의 기지를 세웠던 곳인 길갈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담은 길갈에서 꽤 가까운 아담이라는 마을이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곳은 이 모든 훌륭한 신성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고대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거룩한 기억을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 말했듯이 그것은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습니다. 이제 조금 복잡해집니다.

언약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학은 언약을 성경 전체의 주제로 본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원래의 언약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3장에서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나는 그들 중 하나입니다. 아니오라고 대답하세요. 본문에는 언약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언약은 여기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언약은 타락 후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장치입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담과 같다면 그들은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내 생각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충실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담은 하나님께 불충실했습니다.

그가 명시된 언약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어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쪽이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길갈과 벤엘의 패턴에 있는 장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NIV 번역자들과 그가 말하는 다른 장소들은 거룩한 기억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 당신이 죄를 짓고 있는 곳이므로,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괜찮은. 다음에 무엇이 올지 주목하세요. 8절. 저는 이것이 아담이 장소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길르앗은 피의 발자국으로 얼룩진 행악자들의 도시입니다. 그가 여기서 길르앗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매우 중요한 장소이자 많은 유혈사태가 발생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왕들의 대로는 광야 가장자리를 따라 다메섹으로 나아갔느니라. 그래서 홍해로부터의 교역이 그 길로 올라왔고 길르앗은 이쯤에 위치해 있었고 그 길의 지선이 이스라엘 계곡을 거쳐 여기 지중해까지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교차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차로를 통제하면 길르앗의 높이인 라못 길르앗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도로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곳은 선지자가 아합의 집을 멸하기 위해 예후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피묻은 곳이다. 온 나라가 길르앗처럼 피범벅이 된 곳입니다.

길르앗은 피의 발자국으로 얼룩진 행악자들의 도시입니다. 약탈자들이 희생자를 찾아 매복해 있는 것처럼, 성직자 무리도 매복해 있습니다. 그들은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살인을 하며 그들의 악한 계략을 행합니다.

맙소사. 자, 이제 다시 여기에 약간의 지리가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꽤 쉽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능선을 따르지만, 예루살렘 북쪽에는 능선이 더 갈라지고, 그 길을 따라가면 야곱의 우물이 있던 곳인 세겜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그리심 산, 북쪽에는 에발 산, 이쪽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므로 세겜은 수도로의 접근이 가능하며 물론 매우 중요한 성소인 벧엘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사마리아와 벧델 사이의 그 길에 이 제사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살인자입니까? 실제로 길에서 사람을 죽이는 걸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4장과 5장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들의 임무에 실패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토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희생을 통해 수입을 얻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희생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토라를 가르치지 않고, 죄를 피하도록 돕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백성을 영적으로 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들을 죄로 이끌고 있으며, 실제로는 살인자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야 합니다.

목사도 살인자가 될 수 있나요? 예. 예. 목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직업을 수행한다면, 목회자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신실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목회자가 사람들을 다시 점점 더 깊은 제자도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이야기하기 편한 주제는 아니지만 호세아서는 단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8세기 이스라엘.

오늘쯤이야. 나는 이스라엘에서 끔찍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에브라임이 매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럽혀졌습니다. 전체적으로 호세아는 이 사랑의 언어, 성적인 언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종교는 지위에 초점을 맞추고 지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당신은 구원받았나요? 당신은 구원받았는가? 당신은 정당합니까? 상태. 위치.

글쎄요,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거듭남의 필요성을 믿습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개종의 필요성을 믿습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환됩니까? 무엇에서 무엇으로 새로운 탄생?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방식으로 걸어가도록 부르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이는 그로부터의 소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에브라임이 모두 언약을 어긴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브라임이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매춘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그와의 결혼을 거부했으며 또 다른 거짓 관계에 빠졌습니다. 즐거움을 바탕으로 한 관계.

대가 받고 무언가를 얻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 결국 생명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파괴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짓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관계,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죽음을 초래하는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춘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생명을 주는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를 이용하려는 매춘관계인 걸까?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과 다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예배하지 말고 예배하라고 말한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내가 마땅히 섬겨야 할 것을 섬기면 거짓 예배를 하는 것이요, 마땅히 섬길 것을 섬기면 나는 사망에 있느니라.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유다야,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회복시킬 때마다 너에게도 추수 때가 정해져 있다. 이제 우리는 호세아 본문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회복시킬 때마다 그것이 실제로 7장의 첫 구절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현재의 장 구분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유다여, 이것은 당신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의 추수는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회복시킬 때마다 정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수확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며, 바람을 심었고, 회오리바람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회복시키겠다는 것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습니까? 글썄요, 제 생각엔 바로 이 장이 시작된 곳인 것 같아요.

나는 내 백성의 죄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그들의 운명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그것을 절대적인 진술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무한히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거듭거듭 우리는 우리 자신의 종말에 도달할 때까지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인생이 훌륭하고 아름답게 돌아가는 한, 누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까? 나는 잘 지내고 있다. 하지만 인생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갑자기 '잠깐만, 잠깐만 난 충분하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맏소사, 어디 계시나요? 물론, 참호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여, 추수가 다가오고 있지만 그 추수에 있어서 나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당신 자신의 삶에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면, 일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기회입니다. 회복을 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부흥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임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헤세드로 우리에게 다가가세요. 인생의 비극을 선한 일에 활용하기를 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당신에게 연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참으로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소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예, 나는 주님을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